

存在認識

李載薰

現代哲學의 一特徵或은 動向이라고 볼 것은 知識 上으로나 情意 上으로나 現實生活에 對한 強烈한 執着을 가지고 있다는 것 抽象的 概念 理想이라든가 希望으로서는 滿足하지 못하고 現實感에 對應하는 強烈한 思索을 要求하고 있다는 것이다. 哲學的 危機는 哲學其 自身을 反省하게 하고 있다. 왜 從來의 立場을 固持하지 못하고 新哲學을 要求하게 되었는가 왜 새로운 哲學을 要求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느냐의 價値의 問題는 왜 새로운 立場으로서 哲學을 研究하게 되었는가의 必然의 問題를 떠날 수 없다. 왜 哲學의 立場을 變하게 되었는가의 必然의 理由는 無論在來의 哲學의 缺陷을 보는 까닭이다. 其 立場이 틀렸다는 것을 自覺하는 까닭이다. 그러면 틀렸다는 것은 如何히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뜻을 바에 對答함이 없을 뿐더러 解決의 能力을 가지지 못함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뜻을 무엇인가. 그것은 現在 實踐的으로 交涉하고 있는 이 現實 其 自身이라고 하겠다. 深刻하고 無限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 이 現實的 存在에 現代哲學은 其 思索의 힘을 集注하고 있다. 여기에 現代文化的 危機를 哲學의 領域에서 본다면 「칸트」哲學으로써 代表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爲先 「칸트」哲學을 考察檢討함으로 出發하여 나의 思想을 展開시켜 보고저 한다.

「칸트」는 近世 概念論 哲學의 不朽한 基礎를 준 大哲學者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칸트」의 哲學은 先驗的 概念論(Transcendentale Ideallismus)이라고 한다. 認識이라고 하면 勿論 主觀과 客觀의 相關關係를 想像하지 않으면 아니되나 「칸트」에 있어서는 認識과 對象에 關한 普通人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달이다. 普通 우리는 周圍의 世界 對象이라는 것이 먼저 잇은 後 그것을 우리는 認識한다고 하는데 「칸트」는 이 關係를 轉倒하였다. 이것이 有名한 「칸트」의 (kopernikanshe Drehung)코펠니커스의 轉廻라는 것 即 普通人이 地球와 太陽에 關하여 가지고 잇는 生覺을 轉倒하였다는 것이다. 客觀的 實在에 認識이 從하는 것이 아니라 認識이 實在를 構成한다는 것 即 「칸트」는 主觀意識의 認識能力에 思索을 集注하였든 것이다. 素朴的 態度에서 보이

는 바 主觀意識은 결코 單純이 客觀的 對象을 措寫하는 것이 아니고 對象을 收容하며 그것을 思惟 判斷하는 能力을 具有하고 있다. 이리하여 「칸트」는 受容하는 者로서 直觀의 先驗的 形式으로서의 空間과 時間을 말하였으며 思惟하는 者로서 先驗的 形式 即 悟性の 先驗的 範疇(十二)를 指摘하였다. 우리가 外部로서 받는 것을 爲先이 先驗的 形式으로써 直觀한다. 어떤 物件을 空間的 時間的으로 보는 것은 物件 其 自身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主觀意識이 本具하고 있는 先驗的 또는 先天的 作用이다. 即 主觀意識이 物件을 空間的 時間的으로 構成하는 것이다. 그러나 物件을 時間的 空間的 感性的으로 直觀하기만 하여서는 오즉 現象된 것 뿐이며 아무 秩序 規律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聯絡關係를 얻게 됨에 비로소 經驗이 되는 것이다. (先驗的 感性論)(Kant; Kritik der reinen Verunft. Reclam S. 154. 常識的으로 物件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벌써 感性的 直接 所與를 思惟로써 結合한 것이다. 이 結合하며 規律있게 하는 것이 即 悟性の 先驗的 範疇가 가지고 있는 能力이다. K. d. r. v. R. s. 37. 主觀意識에 悟性の 이 先驗的 判斷作用이 없으면 物件을 秩序있게 볼 수가 없는 것 即 經驗, 認識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칸트」는 先驗的 演釋論에서 이 範疇 即 純粹悟性概念을 全然經驗으로부터 獨立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如何한 根據로서 經驗的 對象에 對한 客觀的 妥當性을 가지는가를 論하였다. 時間 空間의 形式으로서 받는 感覺의 內容으로서는 아직 經驗的 對象을 構成하지 못하는 것 對象이라는 것은 直觀的 多樣을 綜合的으로 統一함에 成立하는 것이다. 이 統一하는 者가 即 先驗的 統覺 transcendente Apperception 이라는 것이며 統覺은 對象을 先驗的 範疇로서 判斷하는 能力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即 先驗的 主觀 transcendente Subject이라는 것이며 「新칸트」學派에 있어서 認識論의 主觀 Erkenntnisstheoretische Subject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先驗的 統覺은 經驗的 意識의 主觀的 統一이 아니고 客觀的이라는 것이고 意識의 客觀的 統一이 所謂 意識一般 Bewusstsein überhaupt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主觀的 經驗的 意識의 統一과 區別하게 되며 認識은 만듯이 이 意識一般을 先想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와 같이 「칸트」의 認識論에 있어서는 先驗的 統覺이 究竟의 統一의 根據 妥當의 根據이다. 「칸트」가 말하는 바 即 規範 Norm이다. 이 規範에 依하여 直觀의 材料가 客觀的 對象 即 經驗的 對象이 된다. 여기에 批判哲學이 到達한 바는 經驗一般의 可能性의 制約은 同時에 經驗 對象의 可能性의 制約이라는 것이다. K. d. r. v. R. S. 155. 混沌한 素材가 世界 自然이 된다는 것은 「칸트」의 말하는 바 理性이 自然에 對하여

法則을 規定하는 때문이다. Der Verstand schopft seine Gesez apriori nicht aus, der Natur, sondern schreibt sie dieser vor; Prolegomena § 102 「칸트」의 先驗的 觀念論은 이와 같이 結局에 엮어서 先驗的 意識의 統一인 先驗的 自我에 存在가 依存한다는 것 即 對象이 自我에 依存함으로써 對象이 觀念的이라는 데 있다. 意識과 存在의 同一視 意識에 存在를 還元하며 意識으로부터 存在의 派生을 主張하게 되었다. 英國 「바-그레-」가 個人의 意識과 存在를 同一視한 것 「存在는 知覺이다」 即 Esse est percipi라고 한 主觀的 觀念論에 對하여 「칸트」는 超個人的 意識과 同一視하였다는 意味로서 前者를 主觀的 觀念論이라고 함에 對하여 後者를 客觀的 觀念論이라고도 區分한다. 그러나 「칸트」의 認識論에 있어서 吾人이 注意할 바는 其 認識論의 根底에 「物自體」 Ding an sich 라는 것을 假定하고 있다는 것 即 이 物自體가 感覺을 觸發함으로써 感覺內容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칸트」는 其 認識論에 있어서 이 「物自體」라는 것을 經驗的 直觀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不可認識者로 避하려고 하였으나 肯定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으며 이 超越的 實在를 是認하였다는 意味로서 單觀念論으로서만 볼 수가 없고 實在論과 觀念論間을 事實에 있어서는 彷徨하고 잇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物自體」라는 것은 「칸트」哲學에서 問題꺼리가 되어잇는 것이며 其 後 「新칸트」學派 뿐 아니라 「칸트」學者 間에 여러가지로 論議되어잇는 難解의 問題임은 周知하는 바이다.

以上 論한 바 「칸트」의 哲學을 吾人의 問題를 中心으로 하고 其 中心되는 思想을 畧說하여 보았다. 여기에 明瞭한 것은 「칸트」의 批判이라는 것이 認識의 認識, 認識의 論理, 批判이라는 것, 認識의 客觀的 妥當性的 根據를 確立함으로써 單 事實問題가 아니고 權利의 問題가 其中心이라는 것을 알겠다. 그러면 누구나 「칸트」의 批判哲學을 學習하기만 하면 客觀的 妥當성을 가진 認識을 얻을 수 있다는 自信을 가지겠다고 生覺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自信은 歷史的 事實이 反證하며 不信反抗을 表하고 잇음을 볼 때에 何故인가 하고 우리는 反問하지 않을 수 없다. 果然 「칸트」의 批判哲學의 所謂 認識主觀이라는 것이 立法者가 될 수 잇을가 우리의 思惟나 認識이라는 것을 批判으로서 基礎를 附與한다든가 其 眞理, 妥當성을 立證할 수 잇을가 思惟나 認識 其 自體로 말하면 其 自足性에 있어서 批判보다 以前에 存在하며 批判으로서 變更破壞할 수 없는 事實이 아닌가 批判은 다만 이 事實우에 事實 後에 따라오는 認識事實에 對한 反省에 不外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면 批判이라는 것은 오즉 直接所與인 知識을 檢證分析하고 잇는 者에 不過할 것이다. 이 檢證分析하는 者에 어떠한 理由로써 認識의 客觀性的 根

據 或은 立法者의 能力을 附與할 수 있을가.

그 뿐 아니라 「칸트」는 自身認識을 하지 않으면서 認識의 批判을 하고 있다는 「헤겔」 등의 批評은 論外로 한다 하여도 其 認識主觀이 無活動狀態에 있으면서 能히 一切을 規定하며 產出하는 能力을 가진 者임은 누구나 容易히 推察할 수 있다. 그것은 客觀的 實在와는 緣을 끊고 다만 先天形式이 組織하는 概念間에 必然關係를 問題로 하고 있을 따름이다. 客觀的 世界에 通用하거나 闕하거나 問題가 아니다. 이것이 果然批判일가. 知識의 直接性 (反省以前)에 있어서는 先天 後天 區別 以前의 事實的 存在가 아닌가. 認識의 「아뿌리오리」는 이 直接的 認識의 活動에 있어서 把捉할 것이 아닌가. 批判哲學의 骨髓인 認識主觀이 靜觀的이며 無活動의임을 알겠다. 先驗的 形式과 外界, 世界, 自然과의 사이에 아무 生命的 實在的 關係를 볼 수가 없으며 따라서 世界自然은 自然科學의 客觀으로서의 오즉 理論整齊의 視點에 對하여 잇는 것에 不外하다. 잇는 것은 오즉 表象化한 것 圖式化한 것 뿐이다. 그 안에서 知識의 客觀性을 搜索하고 있다.

無論批判哲學은 對象에 關한 認識이 아니고 認識의 法을 論함에 잇음으로 靜觀的이라도 無妨하다고 할는지 모르나 그러면 왜 悟性의 無能을 歎하게 되었는가. 非現象 Nicht Erscheinung인 物自體를 先驗的 對象이라고 하면서 理論理性은 왜 이것을 實踐理性의 課題로 하였는가 實踐理性에 가서도 「칸트」는 始終 如一하게 오즉 認識의 條件, 制約形式이 問題이었고 客觀的 現實에 進出은 問題로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實踐理性을 假說하지 않으면 아니 될 理由가 어데잇었든가. 理論理性에 있어서 「칸트」는 所謂 純粹 自我라는 것이 結局 主觀性임을 自覺하였든 것이나 아닌가. 理論理性의 其 認識主觀으로 말하면 「칸트」自身이 말하는 바에 依하여 考察하고 보면 그것은 心理的 不純하다고 排斥하는 經驗界에나 또는 原則上으로 侵犯함을 嚴禁하고 잇는 超越界에도 屬하지 않는 其 中間에 彷徨하고 잇는 者가 아니고 무엇인가. 知識의 客觀性이 이러한 先驗的 主觀이 包容할 수 없는 것 그 根據가 되지 못할 것은 明白하다. 우리의게는 이러한 中間的 世界는 없다. 經驗界에 對할 때는 自己의 絕對性을 主張하면서 超越界에 對할 때에는 其 絕對性을 拒否하게 된다면 結局 自己矛盾 或은 自己의 相對性을 表示하고 잇는 것이 안인가. 如何튼 이 主觀의 心意 中에 一觀念, 觀念的 名稱들 實在하는 全世界에 附與함으로 「칸트」는 認識의 妥當性을 裁決하였다. 그럼으로 經驗界 即 自然科學的 科學이라는 것이 歷史的 社會的 生活地盤으로부터 떠나잇는 것이며 따라서 「칸트」의 理性이라는 것이 非歷史的 非社會的임은 無論이다. 여기에 觀念論의 모든 病根이 潛在하고 잇는 것이 아닐가.

그러나 其 實踐性에 있어서 他人의 人格을 手段視하지 말고 目的으로 取扱하라고 한 이 嚴肅한 平和主義者의 心胸 가운데는 觀念的 對象으로서는 滿足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理論理性的 限界를 脫出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에 實在의 認識에 對한 情熱을 禁壓하지 못하였으며 理論理性에 있어서도 「칸트」는 「바-구레」流의 獨斷的 觀念論으로부터 始初부터 脫出하려고 하였든 것이 아닌가. 現象의 概念이 實在的 現實을 問題로 하려면 理性的 概念의 限界로부터 밖에 나오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칸트」의 眞情을 -吾人은 「칸트」學者가 아니며 이 問題에 關하여 「칸트」가 如何히 其 思索을 깊이 하였으며 어떠한 解決을 지었는지는 나의 「칸트」에 對한 知識으로서는 判斷할 수 없으나 -以下의 引用句로서 能히 推察할 수 있으며 그만치 「칸트」의 哲學은 여러 가지로 解釋할 問題를 가지고 있음을 알겠다. 「對衆에 關한 概念의 存在를 傳達식히려면 그곳으로 붙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Unser Begriff von einem Gegeustand mag also enthalten, was und wie viel er wolle, so müssen wir doch aus ihm heransgehn, um diesem die Existenz zuertheilen. Kritik der reinen Vernunft R. S. 475.-472-474

이와 같이 「칸트」는 理論上으로 觀念的 存在와 實在를 同一視하며 兩者를 오즉 正立上存在의 賓辭로서 區別함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同時에 「칸트」는 이 論理的 實在外 實在로서의 自然, 客觀的 現實에 躍進하려는 要求와 熱情이 있었든 것은 獨斷일는지는 몰으나 注意할 것이다. 이것이 不可能한 理由原因이 以上論한 바 其 認識이 主觀的이며 無活動的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無活動的인 意識의 先驗的 統一 先驗的 統覺의 統一인 自我 個人이라는 것이 結局論理的 要請에 不外하거나 單虛構에 不過할 것이 아닌가. 이 意識內에서 觀客의 地位에 앉아서 靜觀하고 잇는 主觀으로서 經驗, 認識의 客觀性을 確立하지 못할 것은 더 論할 것 없이 明瞭하다. 批判哲學이 萬一 經驗은 如何히 先天的 形式에 있어어 可能한가를 問題로 하는 同時에 其 內容方面에 있어서 如何히 可能한가를 問題로 하였드면 이 靜觀的 態度는 取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吾人은 日常 「칸트」哲學을 實踐理性批判을 中心으로 하고 입어야 하겠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으나 以上論한 바는 「산타야나」 「볼가코후」 「켈젠」 등의 經濟學, 法理論으로부터 暗示, 示唆를 받았음을 附言한다.

「칸트」의 後繼者로서 客觀的 觀念論의 大成者인 「헤-겔」에 있어어도 依然히 客觀的 現實的 存在는 問題박이었다. 오즉 (絶對知)無對象인 觀念(理念)의 世界얹에 잇는 것 外 自我의 射程맞게 잇는 存在는 發見하지 못하였든 것이다. 客觀自然은 精神의 自己外化이다. 無論이 精神은 主觀的의 것이 아니라 「칸트」에서 봄과 같이 超主觀임은 無論이다. 이 精神은 自己內에 잇는

論理的 理念과 自己 맞게 對하여있는 自然의 理念의 內面的 統一態이다. 理念이 自然으로 붙어 否定될 때 다시 其 否定을 否定할 때 精神의 意識化 即 自覺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곳으로 붙어 精神에 歷史가 成立하는 것이다. 吾人は 여기에 「헤-겔」哲學에 깊이 들어갈 餘裕를 갖이지 못하였으나 다만 「헤-겔」哲學에 있어어도 「칸트」의 先驗的 觀念論에서 본 것과 同一한 觀念論的 缺陷을 알면 足하다. 即 「헤-겔」에 있어서 概念과 存在의 統一, 其 否定의 否定이라는 것이 아무 媒介가 없이 觀念적으로 마음대로 順々히 되어 있다는 것 實踐的 立場으로서 보지 못한 까닭에 現實的 存在에 進出하지 못하였음으로 認識이 오즉 自己認識의 過程이었으며 따라서 其 歷史의 動向이 오즉 觀念의 相互作用 또는 諸文化의 相互作用의 以上の 것이 안임을 본다. 이같이 觀念諸文化의 土臺, 地盤인 現實的 存在를 遊難하여있는 까닭에 其 精神이라는 것이 非現實的이며 哲學的 一狂想이 되고 말았음을 알겠다.

現代 「新칸트」學派의 哲學의 特徵은 오즉이 「칸트」的 概念論을 其 極度에 發展을 식힘에 있다. 더욱 「마-불구」學派의 思惟根源說 即 數나 實在나, 實體나 할 것 없이 一切을 純粹思惟 Reines Denken의 所産이라는 設을 主張하고 있음은 「코-엔」의 「純粹論理學」의 序說만 넘어 보아도 大膽하고도 其 徹底한 觀念論의 形姿를 엿볼 수 있다. 神이나 物質이나 할 것 없이 哲學者의 思惟의 所産에 不外라는 것이다. 「산타나야」가 이러한 觀念論的 哲學을 獨逸哲學이 양이라 獨逸國民性의 自尊主義의 心然의 産物이라고 評함은 들을 만하다. 註 無統一的이라는 것 認識主觀에 客觀을 從屬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經驗의 背景에 概念의 存在를 두고 物的 存在를 두지 않으며 自然, 歷史의 現實的 進行, 또는 感覺的 經驗을 오즉 法則, 範疇, 論理的 原則 같은 것으로 規律함으로 經驗에 實質과 意味를 附與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註 「산타나야」의 獨逸人 自尊心과 結合한 哲學이라는 것은 其淵源을 天主教에 反抗하는 「푸로레스단트」의 自己中心主義의 遺産을 相續함에 있다고 評한다. 即 新敎主義는 敎會의 腐敗를 發見함으로써 偶然히 宗教改革을 한 것이 안이다. 그것은 個人이 自己自身の 精神으로 聖書와 敎會의 常習을 새로히 解釋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宗教改革의 本質이 있다. 獨逸觀念論이 新敎主義로 붙어 借用하는 原則의 要點은 權威는 內在的이며 絶對的이고 其 如何한 外的 確證이라도 다 疑問的이며 또한 信仰이 만드는 假定의 公證에 對하여 本質的이 안이라는 것이다. 浪漫主義, 觀念萬能主義 가운데 外的 權威에 對한 또 敎義에 對한 新敎的 謀反이 其 絶頂에 達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獨逸 「로레-루치」神學者도 獨逸觀念論과 「루-터」的 要素이라는 것을 論하고 있다. 如何든 宗教改革과 觀念論間의 이러한 關係의 考察은 意味깊은

問題임을 否定할 수 없다.

Santayana, G; Egotism in German Philosophy. ch. 2.

Troeltsch; Das Historische in Kants Religionsphilosophie

二

이 主觀性으로 붙어 經驗을 產出하는 것 卽 統一과 普遍性을 附與하려고 할 때 現實經驗은 이 主觀의 立法에 不服을 表할 뿐 얹이라 挑戰함은 이 主觀이 其 王坐를 退度할 때이다. 現實感에 對한 強熱한 意識은 여기에 이 主觀의 優位를 奪去함으로서 難關을 突破하려고 擡頭하였다. 이것이 實證主義, 經驗主義의 哲學의 誕生이었다. 이것은 哲學의 出發點을 主觀客觀의 未分인 純粹經驗或은 直接經驗에 찾은 것이다. 그러나 主觀客觀을 同一線上에 놓는다 하여도 結局은 主觀이 優位를 承認하게 되거나 不然 則 主觀或은 自我라는 것은 客觀化되어 오즉 觀照의 對象이 되며 自發的 活動性을 잃은 無爲無能者가 되고 만다. 여기에 吾人은 이 立場에 잇는 여러 가지 形態의 學說을 評論하며 其 論理上矛盾과 缺陷을 指摘論評할 餘裕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오즉 事實上 結果로서 본다면 豊富한 現實感에 對한 強熱한 要求는 最初의 所期에 反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現實을 把握하려는 精神은 從來의 모든 觀念論的 哲學을 非難攻擊 함으로써 새로운 立場 새로운 出發點을 찾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出發點은 어디 잇느냐 하면 그것은 아무 理論 「로고스」化하기 前의 生素한 그대로의 現實的 存在 그 者에 잇다는 것이다. 이 論理的 構造는 어떠한 것인가. 觀念論이 存在와 意識을 同一視하며 意識의 所產으로 함에 對하여 이 立場에 있어어는 存在는 意識의 外部에 잇으며 意識을 規定하고 잇는 것 意識은 이 外部에 獨立하여 잇는 實在의 反映이라는 것이다. 「칸트」의 「코페루니커스」的 轉廻라는 것은 여기에 다시 轉覆이 되었다. 存在는 單客觀的으로 獨立하여 잇을 뿐 얹이라 其 自身法則을 가지고 잇는 것임으로 「칸트」批判哲學에서 본 것과 같이 悟性의 法則을 存在에 附與함이 안이라 存在의 法則을 反映하는 것이다. 卽形式的 諸原則이 先頭에 서는 것이 얹이라 存在의 諸原則이 先頭에 서며 그것이 根源的이다. 이 兩者는 無論對立的 存在가 얹이고 原像과 模寫의 關係에 잇음은 注意할 것이다. 註註 原理는 研究의 出發點이 얹이고 最後의 結果이다. 그것은 自然 及 人間史에 通用하는 것이 얹이고 그곳으로 붙어 抽象되는 것이다. 自然 及 人間界가 諸原理에 順應하는 것이 얹이고 諸原理는 그것이 自然 及 歷史와 一致함에 限하여 바르다.

Engels; Ant Duhring 長谷 譯 岩波文庫 九十二血參照.

「헤-겔」에 있어서는 自然은 精神의 自己外化的 現象이었던 것이 이 立場에 있어서는 反對로 精神을 自然의 外化라고 하며 이 客觀的 自然이 社會成立의 地盤으로서 其 自身歷史的이며 따라서 意識은 其 發展의 所産이라는 것이다. 卽 要言하면 意識, 精神, 主觀에 對하는 存在, 自然, 概觀-卽 物質을 根源的으로 함으로 여기에 基하여 모든 觀念形態의 成立의 由來 其 性質을 檢討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客觀的 存在는 如何한 것인가. 「그것은 感覺에 있어어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의 感覺으로서 複寫, 模寫하며 感覺하는 獨立히 存在하는 客觀的 現實態를 表하는 哲學的 範疇이다」 레-닌 「唯物論과 經驗批判論」 改造社版 上卷 二十六頁 及 下卷 二六頁 參照.

卽 말하는 바 存在는 우리의 意識, 知覺과는 獨立하여 其認識으로 붙어 떠나 있다는 것이며 認識의 根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認識은 客觀的 現實態의 模寫로서 成立하는 것임으로 意識이란 것은 觀念論과는 反對로 存在로 붙어 派生하는 것 存在가 決定的이라는 것이다. 意識 思惟라는 것은 여기에 其 獨立性を 잃을 뿐더러 그것은 오즉 自然의 發展하는 一定한 段階에 비로소 出現하는 것 卽 物質 其 自身の 最高所産에 不外하다. 物質의 發展段階에 있어어 一定한 方式으로서 組織된 物質의 一性質이다. 그러면 이 存在와 意識의 關係 卽 客觀的 現實態를 反映하는 것은 如何히 可能한가. 如何히 우리는 對象(存在)를 認識할 수 있는가. 認識이 成立하면 其 客觀的 妥當性의 規準은 어데 있는가. 「칸트」에 있어어 이것을 爲하여 其 認識能力을 檢査 批判함과 같이 이것은 觀念論에 있어어도 同一한 問題性を 가지고 있음은 無論이다. 그러나 이 立場에 있어서는 「칸트」와 달이 理論의 限界를 벗어나 問題인 根據를 實踐에 찾고자 하는 것이다.

「對象的 眞理가 人間的 思惟에 到來하는가 않하는가의 問題는 아무 理論의 問題가 아니고 實踐의 問題이다. 實踐에 있어어 사람은 眞理를 卽 思惟의 現實성과 힘, 此岸性を 說明하지 않으면 안이된다. 思惟, 實踐으로 붙어 遊離된 思惟의 現實性, 非現實性에 關한 論爭은 純全이 「스고라」哲學的 問題이다. 「호이엘맞하論」 岩波文庫 佐野氏譯 一〇四, 一〇五頁 模像과 原象의 一致 卽 認識의 眞理性의 確證 根據는 實踐에 있다. 이 意味에 있어어 實踐은 認識論의 出發點이며 其 基礎가 되어 있음을 알 것이다. 「生活實踐은 認識論의 第一이며 또한 其 基礎的 視點이 많으면 많이 될 것이다」 唯物論과 經驗批判論上, 上掲書一八五頁

「푸라톤」이 善의 理念으로써 主觀의 認識의 能力과 對象의 可認識性を 說明함과 같이 여기에서는 實踐 其 者에 있어어 吾人의 思惟가 存在를 認識한다는 能力을 가지게 되며 其 眞理性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模寫는 우리가

實踐에 있어어 對象에 進出하는 곧으로 붙어 엮는 것임으로 認識은 恒常運動的이며 過程的이다. 模寫說의 認識論은 이리하여 辯證法과 必然의 關係를 가질 뿐 양이라 辯證法에 있어어 비로소 其 理論의 具體性을 把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辯證法은 存在 其 自身の 具體的 展開의 原理인 까닭이다. 「칸트」나 「헤-겔」에 있어어 蔑視하며 否定되었든 自然이 여기에 있어어 重要性을 갖으며 따라서 其 辯證法이 「헤-겔」의 辯證法이 顛倒되어 있음은 周知하는 바이다.

여기에 吾人은 靜觀的 觀想的 態度로부터 實踐的 活動的 態도의 轉廻을 보고 있다. 自然과 人間, 人間과 人間の 實踐的 交涉으로써 나타나는 現實의 地盤을 獲得함으로서 우리의 生活이 本來歷史的 社會的임을 證示하고 있다. 如何한 思想如何한 觀念形態도 이 地盤을 遊離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다만 이 現實的 地盤에 基礎를 갖고 있는 「上部建築」에 不外할 것이다. 生活의 意義는 決코 主觀的 目的 觀念으로서 附與되는 것이 양이다. 모든 精神形態 觀念形態의 批判은 이 現實的 地盤의 變革의 問題와 不可分離的으로 있다. 故로 現實的 人間的 存在라는 것도 其原初的 形態를 오즉 自然과의 實踐的 交涉인 生産에 있어서 볼 수 있다. 「人間은 그네들의 生産力의 一定한 發展으로써 이 生産에 相應하는 交通의 一한 發展으로써 制約되어 있는 現實的 行動하고 있는 人間이다. 이것이 人間の 存在이다」 Ije Ieufiche Ideologie 岩波文庫 三木譯四八, 四九頁.

以上 論하여 온 바를 보면 思想의 發展이 決코 偶然的이 양임을 알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 깊은 思索을 要求하는 豊富한 問題를 包藏하고 있음을 譯者는 容易히 看取할 것이다. 이 唯物哲學은 過去의 哲學的 存在가 양이라 現實과 같이 動하며 生長하여 나아가는 現實的 關心의 對象임을 알 것이다. 그러면 이 唯物哲學은 從來의 形式主義의 觀念論의 無毛荒廢한 曠野를 如何히 開拓하였는가. 그것은 哲學을 理性이라든가 抽象的 自我라든가 絕對精神을 認識의 原理로 하지 않고 現實的 社會的 聯關에 있어어 現在의 生活諸條件下에 活動하고 있는 具體的 人間的 現實的 存在로 붙어 出發함에 있다.

自然과 사람, 사람과 사람, 肉體와 精神의 分離를 許容하지 않는다. 따라서 「칸트」哲學에서 본 바 所謂認識主觀의 靜觀的 態度 같은 것을 粉碎하여 버리고 靜觀의 對象으로서는 混沌하며 盲目的인 이 生生한 感性的 現實에 進出하며 實踐으로서 그것을 把握하려는 것 活動에 모든 知識을 轉化시키는데 哲學의 變更을 보게 되었다. 知識과 實踐의 聯絡, 여기에 우리는 「칸트」가 認識 自體를 反省하며 批判함과는 달은 意味에 있어어 認識 自體를 反省하게 되는 것이다. 「칸트」와 같이 認識의 根據로서 先驗的 形式을 定立한다 하

여도 問題될 것은 對象을 認識하려는 우리의 要求는 이 先驗的 形式과 存在와의 關係를 무엇이식히는가를 못지 않을 수 없다. 西南學派가 이 「아뿌리오리」를 價値라든가 當爲라든가에 갖다 부친다 하더라도 客觀的 實在와의 이 二元的 對立을 如何히 克服할가가 問題가 될 것이다. 이 現實的 存在에 進出식히는 通路는 오즉 實踐的 活動其者에 찾을 수 받게 없다는 것은 以上 觀念論을 檢討할 때 其 缺陷으로서 吾人이 指摘하여 온 것이다.

認識은 主觀客觀의 對立을 想像한다. 對象을 觀照的으로 客體的으로서 把握하는 것이 얕이고 主體的으로 實踐으로서 把握하고자 할 때 主觀客觀의 生々한 聯絡을 엇게 되며 主觀을 客觀化하며 이것으로서 客觀實在의 世界를 客觀化하는 우리의 現實性을 보게 되는 것이다. 故로 現實에 있어어는 누구나 理論이나 意識 以前에 實踐的으로 볼서 事實로서의 理解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卽 現實的 存在는 實踐的으로 理解를 가지고 있는 存在라고 하겠다.

그러나 吾人은 여기에 疑問이 업지 안다. 왜 이 實踐的 交涉을 오즉 感性的 物質的이라고 하는가. 普通 唯物史觀의 見解로 主張하는 바 이 實踐을 物質的으로 하는 데는 理由가 없는 것은 얕이다. 이것을 物質的이라 하지 않으면 實踐하는 者의 主觀性, 個人性이라든가 性格이라는 것을 脫却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그러치만은 人間의 存在는 自然과 實踐的 交涉을 하고 있는 社會的 存在로써 單物的 自然的 對象으로 붙어 區別되어 있는 것이 얕인가. 「맑스」自身 人間의 存在를 單自然的 存在로 區別하면서 一方 其 區別을 攻擊하는 點(獨乙 古典 哲學論 參照)도 있고 하야 不明 曖昧함으로써 여러 가지 誤解의 原因이 되어 있는 것은 事實이나 「맑스」에 있어어는 其 自然이라는 것이 人間의 行動으로써 變更할 것 卽 靜觀的 觀想的 對象으로서의 自己 同一한 者가 얕이라 人間의 生産的 活動에 依하여 있는 것이 얕인가. 自然이라는 것은 「칸트」가 論한 바 決코 自然科學의 對象의 自然이 얕이다. 그것이 實踐을 基礎로 하고 있는 自然임으로 사람은 自然的 存在라고 하여도 物的 自然이 되어서는 얕이 될 것이다. 自然은 人間의 社會的 存在를 成立식히는 一契機라고 할 것이 얕인가. 故로 自然의 法則이라는 것도 自然科學的 普遍 同一的 法則이 얕이고 歷史的으로 發展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여기에 吾人은 이 論議에 더 깊이 드러가고져 하지 얕으나 人間의 社會的 現實的 存在가 實踐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現實的 存在는 決코 自然的이 얕이고 其 自身道德的이라고 할 것이 얕일가. 現實的 歷史的 社會的 存在는 바로 精神과 物質의 合作이라고 할 것이다. 故로 社會的 存在를 實踐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當爲的 存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存在가 意識을 規定한다고 할 때에 其 存在라는 것을 單自然的 必然的 存在가 얕이고 社會的

存在라고하면 無論 個人的 意識 뿐 아니라 모든 文化的 諸形態가 本質上 社會的 產物이 됨은 問題될 것 없이 眞理라고 할 것이다. 現實的 存在는 其 自身 相互 不可透인 두 힘이 組織되어 잇는 即 自己存在를 肯定하는 同時에 그것을 否定하지 않을 수 없는 實로 不安定한 均衡狀態를 暴露하고 잇는 存在라고 할 것이다. 社會的 現實 뿐 아니라 人間生活에 對한 自然의 物的 世界라는 것도 우리의 生命을 威脅하는 者이지만도 그것과의 共存하고 있음은 矛盾이라고 하겠다. 生産行爲으로써 우리는 이 矛盾을 止揚하며 自然世界에 自己의 領域을 擴張하고 잇는 것이다. 여기에 自己의 意識이 成立한다. 即 對象 가운데 自己를 發見하며 自覺을 얻게 되는 것이다. 強烈한 能動性이 動하는 곧 그 곧에 바로 自己 否定者를 包含함에 眞實한 自己矛盾을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物質과 精神 自然과 人間은 그 相互作用에 잇서서 現實로서 吾人에게 所與되는 것이다. 主觀을 떠난 客觀 客觀을 떠난 主觀이 없음과 같이 다만 物質 또는 다만 精神이라는 것은 吾人の 現實的 生活의 過程에서는 볼 수 없는 것 그것은 벌서 科學的 主觀을 통한 抽象的 存在임을 不免함 것이다. 田邊傳士가 말함과 같이 오죽 物質 客觀에 辯證法이 成立하지 못함은 오직 精神 主觀에 成立하지 못함과 同一한 것이다. (哲學通論 參照) 이 兩者는 같이 單獨히 잇서서는 辯證法을 否定함에 歸結하겠다. 現實的 矛盾은 主觀下에 客觀을 抹殺하는 唯心論的 一元論이나 反對로 客觀의 名稱下에 主觀을 滅盡식히는 唯物論으로서는 說明할 수 없다. 現實은 언제나 主觀의 客觀化이며 客觀의 主觀化이다. 그 사이에는 單因果的 關係로 볼 수 없는 말하자면 同時的 存在라고 말하겠다. 오죽 社會的 存在의 發展의 現實的 構造에 依하여 主觀, 客觀, 物質, 精神間 한편이 優勢하며 또는 重点을 가진 것 같이 보일 때는 잇스나 優勢하다는 것과 根源性이라는 것을 同一視하거나 混同하여서는 안이된다. 兩存在의 對立統一을 意識하지 않으나 이 統一에 基하여서만 實踐的 活動이 잇을 수 잇스며 또한 그것이 合目的的이 될 수가 잇는 것이다. 意識하지 않는다고 그 存在를 否定한다면 主觀的 觀念論과 同一한 誤謬에 빠질 것이다. 兩者의 對立的 存在는 우리 人間이 產出하는 것이 아니라 不可分離的인 存在로서 所與되어 잇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克服될 運命下에 잇는 者이다. 實踐은 이것을 克服하여 統一을 實現할 任務를 가지고 있다. 그러타면 統一은 決코 自然的 過程에 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實踐을 오죽 物質的이라고 할 수가 없다. 吾人は 여기에 實踐의 길을 밟아「칸트」의 認識主觀의 王坐로 붙어 現實界에 進出하기는 하였스나 이 現實的 構造라는 것이 唯物論에서 말하는 것과 달음을 보았다. 따라서 現實을 把握할 實踐에 關하여서도 달은 見解을 갖이게 되는 것은 當然한 길이다.

唯物史觀 公式에 依하면 社會의 物質的 生産諸力은 그 發展의 一定한 段階에 있어서 그것이 運動하고 있는 現存하는 生産關係와 矛盾衝突하게 된다. 이 모든 關係는 生産諸力이 發展形態로 붙어 그 桎梏로 轉化한다. 따라서「上部建築」인 觀念形態는 現實的 地盤으로 붙어 獨立하여 도로혀 生活의 桎梏가 됨으로 그 사에 矛盾을 惹起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實踐的 變革은 不可避라고 한다. 無論 實踐은 單 自然의 所爲가 不일 것이고 사람의 活動이 겠다. 卽 이 現實的 存在를 辯證法的 分析을 함으로써 그 變革의 必然性을 科學的으로 認識하며 그 必然에 따라 그 必然한 者를 意志함으로 遂行한다는 것이 말하는 바 實踐의 最高最深한 意味이겠다. 여기에 社會的 歷史的 發展의 動力인 實踐은 個人的 意志自由에 根據하지않고 必然의 認識을 遂行함에 잇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現實의 歷史的 進行의 必然的 方向의 進行이 곳 自由를 成立식히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 認識으로써 必然的인 存在의 進行中에서 動하는 것이 實踐이 될 것이다. 이 實踐으로써 現實存在의 矛盾分裂을 止揚한다면 觀念的인 矛盾과 綜合은 單 이 過程을 反映함에 不外할 것이다. 이것이 道德的實踐이 不인 것은 無論이다. 그러면 이 實踐이라는 것은 結局 自然의 必然的 運動에 歸할 맞게 不다. 이 같이 實踐을 決定論的 視点으로서 본다면 吾人이 疑問으로 하는 것은 必然을 必然으로서 認識하는 自己意識 自己反省 自己啓示가 如何히 可能한가에 잇다. 必然을 必然으로서 認識하는 것은 그 自身 超必然的인 者가 不이면 不 될 것이 不인가. 「헤-겔」이 말하는 「自由는 認識된 必然이다」라는 것은 決코 이 唯物論에 加擔하는 것이 不임을 吾人은 注意할 것이다. 結局 眞理性和 虛僞性을 如何히 區別할 수가 問題가 되지 不는가 無論이 決定論 그 自身을 必然의 產物 歷史的 進展의 反射로서 볼 수 잇겠지만 그러면 그 自身の 眞理性의 決定은 依然히 問題가 되지 不는가. 自己自身の 眞理性을 肯定할 수도 不는 것이며 決定的으로 否定할 수도 不는 것이 不인가. 理論上 自己의 可能性 必然性을 主張하라면 卽 自己의 眞理性을 表明하려고 하면 그 範圍를 벗어나지 不으면 不 될 것이 不인가 이 立場으로서 보면 모든 것은 自己의 處하는 場所와 그 時代에 잇어서 必然의 產物이겠다. 觀念論이나 唯物論이나 할 것 不이 同一한 反射的 觀念的 形態가 不이고 무엇이라고 할가.

現實的 存在는 말하자면 自由와 必然의 同時的 存在 可共存性 背反鬪爭 그 者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決定論에 잇어서는 社會的 關係의 總體인 人間의 本質은 自由와 必然의 背反 以下의 存在이겠다. 그러타면 여기에 잇어서는 必然과의 鬪爭으로서 自己의 勝利를 企待할 可能性은 全然할 수 不는 것이 不인가 必然의 認識 그 者가 別서 自由한 意志가 參加함에 비로소 成立

하는 것이 아닌가. 存在의 歷史的 必然性에 對한 河察 認識으로 말하면 如何한 實踐이나 歷史的 發展에 逆行하므로서는 成立하지 못함을 보아도 이것이 不可缺할 條件이지만 이 條件과 根據를 混同하거나 同一視할 것이 아니다. 한 便으로는 存在의 歷史的 必然的 運動에 制約을 받는 同時에 그것의 認識과 그 運動의 遂行 即 實踐은 生命의 自發的 運動으로서 制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物質的 存在의 運動의 矛盾을 止揚할 認識은 單 存在의 必然性的 河察遂行이 아니고 이러한 存在의 運動과 背反하는 다른 者에 根據하며 그것에 制約을 받음으로 비로소 可能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實踐的 活動은 이 自然的 存在의 運動 其 者를 絶對로 必要로 하나 이것만으로서 成立한다는 것은 自己의 主觀을 通하여 보는 理論化한 存在이라고 하겠다. 理論 以前의 現實的 存在은 벌써 사람의 自由한 所爲의 滲透되어있는 存在이다. 生産이나 生産關係나 社會的 存在 그 自身, 이러한 性格을 가지고 있음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現實로서 所與되는 것이 아닌가 躍動하는 生命을 가진 者에 있어서 이 存在의 必然的 運動이 自由를 制限하는 者로서 生活을 威脅하며 그 위에 重壓하는 宿命的 呪咀者로서 吾人에게 肉簿하고 있을 때 비로소 矛盾對立은 極度の 緊張을 感하게 되는 것이다. 現代社會生活에 있어서 우리의 生活은 全然物質的 存在의 必然性에 隸屬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個人的 自由가 있을 餘地가 없다는 것 따라서 道德的 實踐이라는 것은 無力無能한 것 같이 事實보인다. 故로 精神이라든가 道德으로서는 이제 이 存在의 分裂矛盾을 克服하며 解決할 수 없다는 所謂 危機에 있다는 事實을 우리는 否定하거나 눈을 감고져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말하는 바 이것이 歷史的 進展에 一階段이라고 하면 그 階段을 가지고 歷史的 全過程이라고 決定함을 許容할 수 없다는 것이다. 果然 우리는 이 現階段을 떠날 수 없으며 이 現階段이야말로 解決을 促迫하고 있는 問題의 中心이다. 여기에 이 現階段에 矛盾을 克服할 實踐은 無論 現階段의 現實을 그것의 唯一한 條件으로 하여야만 하겠지만 吾人이 말하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自然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實踐은 自己를 未來에 던지면서 現階段에 動하고 있는 것이라고 生覺할 것이다. 이것은 決코 未來의 統一을 意識하므로써 實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實踐 其 者의 本質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實踐은 意識以前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活動의 自由性を 否定하게 되는 것 갖치도 보이나 우리는 實踐하면서 暗暗裡에 實踐의 主體를 意識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의 生存이 物質的 存在에 隸屬하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生存에 있어서는 우리가 隸屬하고 있다는 悲壯한 感を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 隸屬의 感 또는 意識 其 者는 決코 物的 存在의 運動의 反映이 아니며 다만 그

사이에 必然關係의 法則만을 適用할 것이 아니다. 市井에 서서 自己의 生存을 爲하여 自己의 모든 活動을 物質的 條件에 隸屬시키고 있는 無知한 勞働者에 있어서도 隸屬은 하고 있으나 그 隸屬하고 있다는 感 그 者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隸屬的 活動 그 者 안에는 明瞭히 意識은 아니되나 不滿과 反抗的 氣分을 包含하고 있을 것이다.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는 個人個人의 그 實踐은 外面的으로는 同一한 形式에 屬하지만 그 內面的 性質에 있어서는 相異하다고 할 수 있다. 何如든 이러한 東縛과 隸屬에 感 그 意識은 오직 本質上 自由한 者 自由를 알며 記憶하는 能力을 가지고 있는 者에 있어서만 可能的한 것이 아닐가. 必然에 對한 隸屬의 感 그 者로 말하면 自由라는 것의 明確한 意識을 伴하지 안는다 하더라도 依然히 自由를 根據로 하므로 成立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사람에게 固有한 것이므로 日常生活에 있어서는 意識되지 않으나 어떤 狀態에 있어서는 明瞭한 意識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矛盾 對立이直接的 深刻성을 갖일 때에는 도리혀 意識을 떠나 그것으로부터 分離되어 오즉 意志의 課題가 될 따름이다. 即 實踐의 問題가 되나 只今말한 바와 가치 이 實踐은 自發性이 없는 必然的 過程이 아니라 自己自由로서 制約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吾人은 여기에 實踐의 根據로서 自由를 自己限定的이라고 하겠다. 自己限定的이므로 우리는 自己를 否定하는 敵對者를 갖이는 것이다. 有限한 存在에 있어서는 이 矛盾衝突은 不可避할 事實이다. 우리의 行爲나 決定이 因果的으로 制約되며 決定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 因果라는 것은 主觀의 自由한 決定이 參加함에 비로소 規定된다는 事實을 看過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故로 經驗的 現實的 人間存在 또는 그 意識形態로 말하면 無論社會的 歷史的 現實生活로서 制約을 받고 있는 것이며 大部分 無意識으로 或은 無個性的 存在로서 그 一生의 運命을 決定하고 있음을 볼 때에 그 觀念形態가 그것을 制約하고 있는 現實的 存在에 그 地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必然的 聯關이 있음은 누구나 容易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吾人이 말하는 바 이 現實的 事實로서 存在한다는 것이 現存하는 社會的 諸條件下에 있어서는 大端이 微弱하며 表面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必然的 聯關이라는 것은 依然히 自由를 통한 聯關이라는 것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因하여 우리의 現實은 그 同一性 連續성을 破壞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世界存在의 必然性의 內部에는 이러한 自由活動의 要因이 潛入하여 있음에 歷史的 發展을 볼 수 있는 것이며 歷史의 個體성과 不反復성을 導出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個人은 決코 歷史의 傍觀者가 아니다. 個人의 意識形態와 現實的 存在와는 單反映的 關係 뿐 아니라 實在的 生命的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로소 觀念形態의 問題는 抽象的 理論問題가 아니고 實踐의 問題가 된다고 하겠다. 實踐은 決코 傍觀者態度로서 歷史의 運動을 認識하므로서는 생기지 않는 것이며 이것을 條件으로 하는 同時에 意志的 自由主體에 其 基礎를 갖이고 있음에 可能하다고 할 것이다. 存在運動의 必然性的의 認識과 自由를 決코 同一視하거나 混同할 것이 아니다. 必然으로부터 自由에 飛躍이라고하나 사람에게는 無로부터 有를 創造하며 產出할 能力은 없다. 量과 質의 關係로서 說明할 것이 아니다. 사람의 唯一한 使命은 創造된 것을 再創作하며 剝奪된 것을 다시 奪取하는 것 埋沒되어 있는 것을 發見함에 있지 않은가. 그 以上の 能力은 사람에게는 없다. 自由에 飛躍이라는 것은 自然法則을 理想化함이 아닐까.

이 自由를 否定하는 데에 存在 即 客觀으로부터 主觀을 說明하고자하며 따라서 精神或은 意識이라는 것을 前者로부터 派生한 것이라고 生覺하게되는 基礎가 있다. 社會的 現實的 存在의 發展의 現階段은 客觀에 對한 主觀의 極度の 沈潛을 要求하고 있다. 이 客觀的 存在는 그 自身の 法則을 갖이고 있으므로 主觀을 그 안에 投身하면 그 法則에 順從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認識은 그것의 反映이 될 것이며 實踐은 必然的 運動의 單 遂行에 머물게 됨은 當然한 일이다. 그곳에는 各個體의 意志的 活動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며 오직 個體의 總和에 固有한 것만이 中心이 되어 動하고 있을 것이다. 個體는 社會集團 또는 所與된 階級の 一構成分子 以上の 資格을 갖일 수는 없다. 이 平均的 統計的 存在가 唯物論에 있어서는 바로 實踐의 主體일 것이다. 그것은 오즉 生産에 있어서 外面的 地位로부터 나오는 利害를 中心으로 하고 決定된 主體이다. 이 主體가 各 個人個人的 實踐의 平均的 合力인 以上 그것은 오즉 實踐의 政策上的 한 條件이 될 따름이며 또는 社會進步의 障害의 存在를 表示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 아닌가. 우리의 現實的 實踐이 果然이 階級的 行爲일까 우리의 具體的 實踐으로 말하면 반듯이 社會性을 갖이고 있으므로 因하여 規範的 性質을 가지고 있지만 經驗的인 階級은 客觀的 規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음을 알겠다. 우리는 이 問題에 關하여 여기에 充分히 論議할 수 없으나 (階級論에 關하여 仔細한 것은 高田傳士者「階級及 第三史觀」參照)- 以上 論한 바 틀림이 없다고 보면 認識의 客觀的 妥當性 即 眞理의 規準을 이러한 實踐의 主體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만은 明白하다고 生覺된다. 여기에 吾人은 唯物哲學이 生生한 現實로부터 出發하며 그것을 把握하려고하나 그 現實的 存在의 本質을 이 現實 가운데에서 發見한 것이 아니라 社會科學的 範疇로서 規定된 것임을 알겠다. 이것은 社會科學이 結論이 아니라. 社會科學的 方法論의 前提라고 할 것이다. 實在와 觀念

存在와 意識對立의 一面을 固持함은 結局 具體的 存在의 全一性으로부터 抽象한 것에 不外하다.

三

以上 論한 바로서 讀者는 吾人의 立場을 大畧推察하겠지만 認識은 決코 主觀의 構成에 있는 것이 아니며 反對로 客觀의 反映에 있어서도 찾을 수 없음을 알 것이다. 主觀客觀의 對立은 相對的이며 따라서 그 自身으로서는 認識論 上으로 보면 獨立 自存하지 못할 것 마치 「푸라톤」이 말한 바 缺乏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恒常他者를 求하며 依存하지 않으면 아니 될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不可分離的으로 主觀은 客觀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主觀이며 客觀은 主觀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客觀이다. 即 相互關係에 있어서 所與되어 있는 者이라고 할 것이다. 現實은 바로 이 關係에 있는 存在라고 하겠다. 이 關係라는 것은 無論單知的이 얹이라 情意를 包含하는 心理的 實踐的 關係에 있음은 우에서 論하여 온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對象을 絶對로 貫徹할 수 없음에 限하여서는 對象은 이 實踐的 過程內에서 成立한다고 하더라도 그 自身 超越的 實在性을 保持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同時에 이 實踐的 過程을 보면 그것이 空中에 떠있는 것이 얹이고 그것을 成立시키는 者가 있지 않으면 얹될 것이다. 吾人은 이것을 全體的 統一이라고 말하겠다. 故로 對象이 異他性을 가지고 認識主觀의게 向하여 오는 것 또는 오게 하는 것은 이 全體的 統一에 있다고 할 것이다. 統一은 이 두 作用을 包含하고 있는 眞實한 意味에서 實在이라고 하겠다. 主觀客觀의 對立의 根據에 即 하여보면 統一이지만 對立 그 者에 即 하여보면 兩者는 어디까지든지 對立하여있다. 主觀이 客觀的이며 客觀이 主觀的임에도 不拘하고 兩者가 依然히 對立하고 있다는 것은 結局 統一者의 自己發展 或은 自己決定의 過程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것을 感性的 物質的 發展이라고는 할 것이 얹이다. 이 統一的 發展이야말로 그 對立者를 自己의 契機로서 包含하고 있음으로 그것은 自己自身에 對하여 矛盾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겠다. 故로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精神이라든가 物質에 矛盾이 있는 것이 얹이라 矛盾은 實로 이 統一的 實在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因하여 現實的 存在의 矛盾은 이 統一的 實在에 있는 것임으로 그 現實을 [把握]할 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現實問題가나 個人이 生産하는 것이 얹이고 現實全體가 이 問題를 내고 있음으로 그 全體를 把握함에 비로소 解答을 얻을 것이 얹인가. 앞에서 論하기를 現實을 實踐的으로 交渉하고 있는 存在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實踐(現實生活)이라는 것은 實로 千差萬別 各人各樣이다. 無論 그 사이에는 共通性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現實과의 和解的 妥協

的 實踐或은 衝突的 實踐或은 利己的 欲望을 中心으로 하는 實踐 또는 積極的으로 이 現實을 肯定하는 實踐 그와 反對로 否定하는 實踐 또는 賃銀勞働的 實踐과 道德的 宗教的 實踐 여러 가지 그 種類를 舉示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實踐이 이 現實을 全體的으로 把握하며 理解하고 잇느냐.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實踐이 共通性으로 말하면 現實의 一相에 不過하는 것이다. 個人的 特有한 것을 잃어버리고 잇음으로써 外延的으로는 廣大하나 그 內包的으로는 貧弱함을 알 것이다. 이런 實踐으로서는 現實의 本質을 把握할 수 없는 것이 앎인가. 反하여 그 實踐이 影響하는 바 現實을 變更시킬 때 그 統一을 떠나며 背反하면 할수록 現實全體의 矛盾은 尖銳化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實踐을 그 質上區分하지 앎을 수 없다. 그러면 如何한 實踐이 果然이 現實의 本質을 把握하느냐하면 위에서 論한 바로서 推察하겠지만 오즉 全體的 統一을 自覺함으로 矛盾을 感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矛盾이 잇음에 비로소 實踐이 잇는 까닭으로 統一의 自覺을 깊이 함으로서만 現實的 對象을 把握할 수 있다고 하겠다. 要言하면 生命은 이러한 自覺에 基할 때에 自己를 버릴 수 잇는 것이며 그 버린 生命을 다시 얻을 수 잇는 것이다. 이것을 吾人은 實踐的 辯證法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본 바 觀念的 또는 唯物的 辯證法에서는 이러한 힘 잇는 實踐은 얻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앎을 수 없다. 由是觀之하면 實로 實踐은 自覺의 深淺廣狹 如何에 따라서 制約받고 잇는 것임을 알겠다. 實踐의 主體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主體는 自己가 實踐하면서 그 統一을 現實에 實現하는 것이며 그 實現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앎이라 現實社會的 存在에 動하고 잇는 當爲 그 者를 實踐하는 것이다. 現實社會的 存在의 過程으로 말하면 必然的으로 運動하고 잇으며 따라서 그 끝에는 自由나 當爲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이 안이 다 잇을 餘裕조차 없는 것 가치 생각하는 것은 現實을 把握하라고 하다가 그 끝에 沈潛하게 되어 거기에 잡히어서 그 끝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까닭이다. 否定할 것을 否定하지 앎고 그대로 肯定하고 잇는 實踐이다. 그 끝에서 矛盾을 感할 理가 萬無하다. 여러 번 말한 바 이지만은 現實은 主觀과의 實踐的 對立의 統一에 있어서만 닳타나는 것임으로 우리의 現實的 生活過程은 그 自身當爲의 性格을 가지고 잇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人間의 社會的 存在를 實踐的이라고 볼 수 잇으며 또한 實踐의 歷史的 社會的 意義를 理解할 수 잇는 것이다. 現實的 地盤 그 者가 當爲의 構造를 가지고 잇음으로 우리의 實踐이 個人的 意志內의 當爲에 잇는 것이 앎이라 社會的 存在로서의 人間 그 者에 잇는 것이라고 하겠다. 社會的 存在로서의 사람의 本性을 實踐에 잇다는 것은 希臘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敎訓하여 준 바이다. 「아리스토텔레스」 「政治學」

卷頭 一, 二, 三頁參照.

그런데 社會는 個人에 있어서 그 實踐을 實現하고 있는 것이다. 各 個人으로 말하면 그 個性的 存在로서 同一한 世界同一한 人間性を 自己의 基礎로 하며 自己流로 屈折식히면서 知覺하고 있는 것이다. 現實的 世界の 實踐의 理解라는 것은 이러한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認識의 主觀이라는 것도 「칸트」가 말하는 抽象的 論理的 意識一般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바 具體的 存在로서의 自我이다. 그것은 바로 現實을 所有하고 있으면서 現實에 所有되어있는 即 世界內存在라고 할 것이다. 이 個人의 個性的 存在라는 것은 個別性的 中心이 아니라 바로 實踐의 中心이다. 그럼으로 因하여 個人我라는 것은 無論社會的 全體를 떠나서는 抽象的 일을 不免할 것은 우에서 論한 바와 같지만 그것이 實踐의 中心이 될 때에는 「칸트」의 意識一般과 가튼 것을 包含하고 있는 個人我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그 具體성을 얻는 것이다. 그 具體성은 이 實踐으로서 自己의 個別性主觀性, 我性を 克服함으로써 全體성을 表現함에 있는 者이다. 그럼으로 主觀은 實踐으로서 그 超越的 當爲를 內在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注意할 것은 이 當爲的 實踐을 「칸트」의 無上命令 가튼 法則을 意識함으로 內在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內容은 如何든 意識되지 않지만 오즉 그것이 實踐하는 過程內에 實現됨에 비로소 意識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가치 보편이 「無上命令」 「現實에 統一이 되도록 行動하여라」라고 할 것이다. 自我로서의 活動은 自我를 爲한 活動이 아니다. 「라이부니스」의 「모나-도」의 純粹活動이라는 것도 實踐的이 못되었음으로 神의 豫定調和를 設定하게 된 것이었다. 다시 「칸트」를 끄집어내면 「칸트」의 認識論的 使用의 關心은 結局에 있어서는 實踐的이다.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rs. 146 波多野, 宮本譯一五六, 一五七頁 即 「칸트」에 있어서도 認識主觀을 實踐의 地盤에 있어서 把握하라고 한 것을 알겠다. 그러나 「칸트」의 實踐은 依然히 客觀的 現實에 出路함을 意味하지 않는 것은 無論이다. 오즉 行爲의 制約, 規範을 論하고 있을 따름이다. 主觀主義 獨在論으로 붙어 脫却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實踐的으로 된 것이 아니고 思辨的 觀想의 方法으로서 達成하였든 것이 양인가 思惟의 主體인 論理的 自我라든가 先驗的 自我라는 것은 結局 對象의 世界成立의 形式的 條件을 制約할 따름이지 感性的 對象에 進出하며 克服하고자 하지않음으로 非歷史的 非社會的, 따라서非現實的임을 不免한 것은 우에서 論한 바이었다. 具體的 認識主觀은 有限者로서의 實踐의 過程 안에서만 그 實踐의 主體를 把握할 수 있는 것은 더 論할 바 없이 明白한 事實이다. 浪漫的이지만 「게-데」가 哲學, 法學, 醫學 그 우에 神學까지

研究하고 終乃에 내가 무엇을 아는가 하고 歎息하면서 市井에 나서서 自己를 잡으려고 한 그 心理를 推察하기 어렵지않다. 그것이 主觀的이며 非社會的임은 無論이다.

여기에 以上 論한 바를 總括하여 보면 우리의 現實的 世界라는 것은 自然과 人間 사람과 사람의 交涉的 存在로서 自然的인 同時에 道德的 精神的이라는것을 알겠다. 現實的 存在에 道德的 當爲가 動하고 있음에 비로서 個人의 社會的 實踐이 可能한 것이며 또한 辨證法이 成立한다고 하겠다. 故로 實踐의 主體는 當爲的 存在일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바로 現實의 主體性이라고 하겠다. 因하여 現實的 對象을 主體的으로 把握하려면 主觀客觀의 對立的 統一의 自覺을 깊이 하여 나감으로서 可能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統一의 自覺이라는 것은 實로 人格의 生命의 本質이라고 하겠다. 全體的 直接的, 素朴的인 것은 이러한 生命 外에 찾을 수는 없는 것이 豈인가. 理論 以前 反省 以前 生生한 具體的 所與이다. 科學的 制約的 反省的 現實은 一定한 關係에 있어서만 意味와 價値를 갖이는 것이다. 個人이라는 것은 이러한 生命을 個體로서의 自己 안에 保存하는 能力을 가지고 있는 者를 말함이다. 個人은 類形的 存在가 豈이다. 個人의 生命의 個別化的 傾向은 그것을 克服하지 않으면 豈이 될 運命을 갖고 있음으로 우리의 生命은 바로 道德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生命이 實踐的임은 그것이 道德的임과 同一한 事態일 것이다. 個人의 人格의 生命의 根柢에 우리의 實踐을 限定하고 있는 客觀的 當爲가 存在함으로서 우리의 生命이 여기에 社會的임을 또 알게 되는 것이다. 哲學的 思索 또는 哲學的 實踐으로 말하면 單 主觀的 自己 內部로서 決定되는 것도 豈이며 全然 外部로서 決定되는 것도 豈이요, 이 兩者를 否定함으로 그 牆壁을 터침으로 나타나는 統一을 自覺하는 卽 矛盾을 止揚, 克服함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칸트」의 理性은 여기에 社會的 歷史的 實踐의 으로 되어야 함을 알게 되며 따라서 理論理性 實踐理性의 分離라는 것은 없게 될 것이다. 그러타고 唯物論에서 말하는 바 主觀을 客觀의 生成 안에서 보고저하며 眞理의 規準인 實踐을 單 存在의 運動變化에 찾고저 함은 現實的 存在의 全一性의 一面을 抽象한 것임으로 取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到達한 結論이다. 現實은 動하고있다. 硬化한 哲學的 思想은 自己 몸을 融解식히여 이동하고 있는 者의 紛糾錯綜한 것을 銳敏히 感得하며 여기에 衝當할 勇氣를 갖임에 비로서 그 抽象的 無毛性을 脫却할 수 있는 것이다. 現代哲學의 한 傾向은 바로 이 길을 밟고 있다.

以上 小論稿는 오죽 어떠한 것이든지 「있다」하는 以上 그것을 具體的으로 보아야 하겠다는 具體的 存在論의 立場으로서 二三學說을 檢討하면서 吾人

의 思想을 좀 展開식히여 보았으나 問題는 依然히 確然한 對答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潛伏하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他日에 다시 詳論할 課題로 남기여 두고 只今은 이것으로 끝을 맞쳐야겠다.

一月二十六日